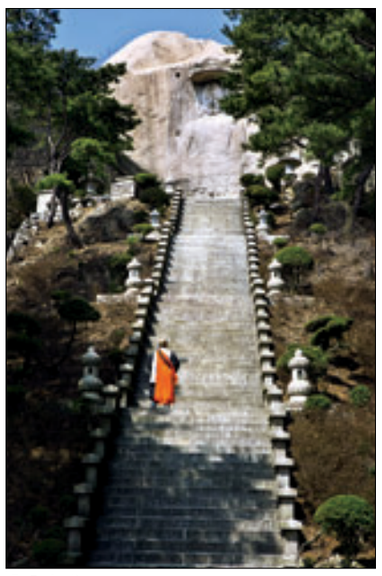
佛家의 시간을 담은 사진들


김승재 作


홍효숙 作


김세중 作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전 및 제12회 청소년불교사진공모전
법련사 불일미술관 4월 26일~5월 3일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사진은 '복제'라는 기능을 통해 같은 대상을 수많은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다. 또한 '무상(無常)'을 증명하듯 흘러가는 시간을 영원한 시간으로 대체 가능케 한다. 그래서 잘 찍은 사진 한 장은 많은 사람의 마음에 오래오래 남을 수 있다. 더구나 그 사진이 불가(佛家)의 시간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전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낮은 눈으로만 찾아낼 수 있는 바위틈의 석불, 먼 시간으로 와서 먼 시간으로 가야하는 미륵불의 무량한 표정. 사진이기에 가능한 전법이다. 올해도 변함없이 불가의 시간과 언어를 담은 사진전이 대중을 찾는다.

한국불교사진가협회(회장 최우성)는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4월 26일(목) 개막식과 시상식을 시작으로 5월 3일(목)까지 법련사 불일미술관(관장 여서)에서 제23회 한국불교사진가협회 회원전 및 제12회 청소년불교사진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들이 해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개최하는 전시이다.

한국불교사진협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서 사진 영상에 원력을 가진 사진가들의 모임이다. 1995년 창립된 이래 전국 각지에 분포되어 있는 회원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전국의 주요 사찰을 순례하며 부처님의 법향을 사진에 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바위에 나투신 부처님'이란 주제로 촬영한 사진 60여 점과 '청소년의 눈으로 보고 느낀 불교'라는 주제로 공모된 청소년 작품 10여 점이 함께 전시된다.

서울 전시에 이어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전시가 이어진다.

'풍경소리'의 그림작가 박준수 개인전

2000년부터 약 10여 년간 지하철 역사의 '풍경소리' 그림작가로 활동해 온 동양화가 박준수 씨가 5월 6일까지 한국문화정품관 갤러리에서 기획초대개인전 '소 · 확 · 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작품들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소소하게 일어나는 행복에 대한 단상들의 표현이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과 그것을 둘러싼 작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작품으로 그려내고 있다.

꽃이 피고 새가 상념에 잠겨 있는 순간을 지켜보거나, 물고기가 개울가 물속을 헤엄치는 장면, 그리고 무심히 바라보며 사색에 잠긴 나를 발견하는 시간, 봄날의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 자연의 변화를 알아차리는 순간과 빨간 자동차로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난 꽃길을 드라이브하는 장면 등 작가가 자연에서 느끼고 경험한 세계가 수묵의 동양적 회화 속에서 경쾌하면서도 소박하게 그려지고 있다.

행복은 작은 주변의 것들과 나누며 찾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번 전시는 그 동안의 추상적 작품세계를 보여주었던 작가의 예술세계 이면에 자연과 더불어 보낸 시간들을 문인화풍의 그림을 통해서 소박하게 전달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파릇파릇 잎사귀 싱그러운 햇살아래 봄노래를 부른다'


'달 밝은 밤 봄노래는 어디선가 들려온다'

'PBM(대중불교음악)' 장르로 탄생

PBM 대중불교음악회
동국대 중강당 4.21 오후 5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특별한 찬불가 콘서트가 열린다. 불교문화 후원단체인 도솔회는 4월 21일 오후 5시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PBM 대중불교음악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6년 제1회 도솔전국불교합창대회(이하 도솔합창대회)를 개최한 바 있는 '도솔회'가 올 10월에 개최하는 제2회 도솔합창대회에서 선보일 찬불가를 앞서 발표하는 쇼케이스 형식의 콘서트이다. 이번 공연이 특별한 이유는 새로운 이름과 좀 더 구체적인 노력으로, 대중화를 위해 마련된 공연이라는 점이다.

우선, 공연의 제목으로 'PBM'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 눈에 띈다. 'PBM'은 Popular Buddhism Music의 줄임말로 대중불교음악을 지칭하는 동시에 불교음악을 하나의 장르로 정착시키고 대중화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번의 이런 시도는 이미 오래 전에 타종교에서 종교음악을 장르화하고 대중화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반적인 불교음악은 범패나 영산회상 등의 특정한 의식을 위해서 발전, 보존되어진 전통불교 음악과 근대화되면서 일반 신도들에 의한 의식곡과 부처님을 예경 찬탄하는 찬불가를 나누어 말한다. 이렇듯 불교음악은 전통과 의식에 국한되어 특정 목적에만 사용되어져 왔다. 그 동안 많은 불교음악인들의 노력으로 대중화를 위한 시도들이 다양하게 있어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전통의 틀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해 진정한 대중화의 길을 열지 못했다. 이번 공연에서 선보이는 음악들은 지금까지의 노력과 시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PBM'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는 불교음악(찬불가)의 신곡들이다. 'PBM'이란 이름으로 선보이는 이번 음악은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처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창작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연과 음원, 방송으로 대중들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되고 만들어진 불교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곡들은 불교적인 가사에 새롭게 곡을 붙인 것으로 팝페라, 발라드, 트로트 등 다양한 장르로 만들어졌다. 작사엔 함현 스님 등이 참여했으며, 대중음악 작곡가 정재환 등이 작곡에 참여했다.

총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콘서트에는 소리꾼 이봉근, 트로트 가수 김선경, 팝페라 가수 이보은 · 박정환과 카루나여성합창단 등 5개 합창단으로 구성된 70여 명의 연합합창단이 출연해, 함연 스님 작사의 '강녕하소서' 등 새롭게 만들어진 찬불가와 '인연' 등 우리 귀에 익은 대중가요를 섞어 총 16곡을 부른다.

이번 공연은 대중불교음악, 즉 'PBM'이라는 장르의 탄생을 알리는 쇼케이스, 제작발표회 개념의 공연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사전에 초대권이 배포되었지만 공연 당일 현장에서 좌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문의 (02)597-9328

박재완 기자

BTN 다큐 '다비' 휴스턴영화제 수상작 선정

한국불교 관련 다큐 중 처음… 서원 등 문화유산채널 작품도

북미권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영화제 중 하나인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한국불교 관련 다큐멘터리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 이하 BTN)는 "BTN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다비(THE BUDDHIST CREMATION, 茶毘: 최동철 연출)'가 제51회 휴스턴 국제영화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4월 6일 밝혔다.

1961년 시작된 휴스턴 국제영화제는 뉴욕 영화제, 샌프란시스코 영화제와 함께 북미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로, 한국불교 관련 다큐멘터리가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2부작으로 구성된 다큐멘터리 '다비'는 1여 년간 '다비' 현장 곳곳을 누빈 끝에 만들어졌다. 1부 '생사불이(生死不二)'에서는 다비의식에 담긴 불교의 생사관을 정리했으며, 2부 '스님, 불들어갑니다'에서는 죽음의 순간조차 해탈의 기회로 맞이하는 한국 승가의 철저한 수행정신을 아름다운 영상언어로 기록했다.

51회 휴스턴국제 영화제는 오는 4월 29일까지 개최되며, 시상식은 현지시간으로 열린다. 또한 BTN 다큐멘터리 '다비'는 이번 영화제에서 다른 다큐멘터리 영화들과 레미상을 놓고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연출을 담당한 최동철 PD는 "한국불교전통문화인 다비식은 가슴깊이 고여드는 무상법문이고 해탈법문이었고, 그리고 장엄하고도 아름다운 울림이었다"면서 "꼭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다비영상과 다비문화를 알려주고 싶었다"고 제작 의도를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이 운영하는 '문화유산채널'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자연과 철학을 담은 한국의 정원'과 '서원, 500년 전 인문학을 탐하다' 등도 제51회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부문 수상작에 선정됐다.

신성민 기자



법장엄일체
미단 달집

면발광 LED 인등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장엄을.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주·야 상담합니다
조형물 · 동상 · 작품 모든 주물 가능함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 031)641-2747, 010-5302-1022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